

오일 트레이더 時代의 終焉

세계 곳곳을 누비며 아랍궤족, 아프리카 추장, 그리고 텍사스의 카우보이들과 거래를 성사시키던 용감한 모험자 오일 트레이더는 세계油價 붕괴라는 흑먼지 속에서 그 존재가치가 희미해져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적 규모의 무역·정유 기업인 코스탈사의 오스카 와이어트씨는 『이제 나는 트레이더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내가 직접 산유국을 방문함으로써 내 정유공장을 석유로 채워 놓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런던의 국제적 석유 컨설턴트 아이언 스마트씨는 『전통적인 트레이더 또는 브로커라는 직업은 몰락했으며, 이제 컴퓨터와 전화만을 가진 새로운 혈통의 트레이더가 대를 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네트백 거래시대의 도래

전통적인 트레이더의 존재가치를 퇴색케한 장본인은 소위 네트백 거래로서 이 거래 시스템은 급격히 석유 거래의 전형으로 자리를 굳혀오고 있다. 공급과잉의 와중에서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석유 수출자들이 안출해 낸 네트백 거래는 구매자가 정제된 제품에서 최소한의 이윤을 낼 수 있는 수준에서 원유가를 책정함으로써 구매자의 이익을 보장하면서 판매를 신장시킨다는 방식이다.

최근 이러한 네트백 거래가 번창해짐에 따라 이제까지 트레이더들이 제왕으로 군림했던 스파트 시장에서의 원유

거래물량은 점차 줄어들어 가고 있다. 쿠웨이트 석유공사(KPC) 런던 사무소장인 압둘 사마드 알 아와 디씨는 『현재 지중해지역 석유 수송량의 70%가 네트백 거래인 것으로 생각되며 지난 해 70%가 스파트 시장에서 판매된 것과 좋은 대조가 되고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네트백 거래의 번창에 따라 중개회사들 간에는 도산사태가 발생했으며, 런던의 北海産 브렌트油 스파트 시장은 폐쇄직전의 상태가 되었고 최근에는 석유인도계약의 불이행사태가 대거 나타나기도 했다. 수천명이 트레이딩 게임에서 손을 떼고 있다. 회사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한 미국계 메이저는 자사가 지난 2년간 세계 각지의 트레이더를 30-40% 감축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 4반세기를 美國 최대 석유회사의 트레이더로 일해온 한 베테랑은 그가 해온 일이 『낭만적이었다』고 회상하면서, 그러나 자신이 라고스, 두바이, 카이로, 트리폴리, 카사블랑카, 아부다비등 석유도시를 전전하며 오랫동안 애써 쌓아온 인간관계와 지식들이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되었다고 한탄한다.

트레이더들의 전성기

19세기 가치있는 상품으로 石油가 발견된 이래 사람들은 세계를 돌며 이의 거래를 성사시키곤 했다. 그러나 오일트레이더들의 진정한 전성기는 1970년대였다. 왜냐하

면 이 시기가 정치적으로 유발된 혹독한 석유 위기가 유가를 치솟게 했던 때 엮기 때문이다. 1973년 아랍 산유국들의 석유 수출금지, 1979년 이란회교혁명 그리고 산유국들에 의한 석유 메이저 자산의 국유화등은 이들 산유국들과 특별한 연계를 갖고 있는 트레이더들을 아주 중요한 인물로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아랍의 오일 자이안트들은 리비아, 쿠웨이트, 베네수엘라 그리고 사우디 아라비아등지에서 갑자기 공급을 끊어 놓고 그에 따라 국제적 석유 부족 사태가 오면 이들 트레이더들을 찾아 그들의 봉사에 대해 프리미엄을 지불하곤 했다. 더 나아가서 油價가 오르면 대부분의 석유 수출국들은 장기 공급계약을 파기하고 트레이더들을 중개인으로 이용, 스파트 시장에서 Cargo - by - cargo 베이스의 판매를 택하곤 했다. 그것은 트레이더들의 낙원이었다. 그들의 지위는 높아지고 재산은 마구 불어났다. 은행가들은 그들을 왕자처럼 대접했다.

그러던 것이 오늘날 油價는 떨어지고 공급이 늘어나자 구매자의 시장으로 상황은 바뀌었다. 수출국들은 트레이더들을 따돌리고 대규모 회사들의 손에 직접 할인가격의 장기계약 원유를 인도하고 있다. 또한 선물시장이 투기자들의 조작에 의해 확대되고 있다. 이들 투기자들은 석유 자체에 대해서는 가격이외에는 별반 알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다.

구식의 石油 무역

이제는 재래식 석유 트레이드의 시대는 끝났다는 것이 지난 2월 런던에서 석유회의에서 열린 2천500여명의 석유 기업인들과 트레이더들의 일치된 견해였다. 단지 아직도 트레이더들에게 새로운 트럭을 배워 써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었을 뿐이다. 변함없는 번영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일부 유형의 트레이더는 개인적 접촉이나 뇌물등의 비호를 받으면서 제3세계 국가들로부터 석유구매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등 특수한 이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전형적으로 이러한 계약은 이들 트레이더가 정유업자, 대형 트레이드 회사 또는 남아프리카와 같이 대다수 산유국들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석유가 필요하면서도 직접 석유를 구매할 수 없는 국가등의 최종 소비자와 갖고 있는 또다른 계약의 뒷받침을 받고 있다.

무역회사인 고트코 NV社 회장 허버트 굿맨씨는 트레

이더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고객서비스라는 문제를 보다 깊이 생각해야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고객서비스는 국제 공급계약의 체결에서 부터 용선, 油價리스크를 뉴욕 상품거래소에 연계시키는 일, 정유공장이나 블렌딩 플랜트를 가동시키는 일까지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대규모 트레이드 회사들은 최근 그들이 계약하는 석유의 소비시장을 보다 확실하게 확보하기 위해 정유공장 매입에까지 손을 댔다. 레바논 소유의 스위스 소재 가트오일 SA 와 같은 트레이더들은 자체 생산제품의 판매를 위해 스위스내에 상당수의 휘발유주유소를 매입한 예도 있다.

또다른 트레이더들은 石油와 타상품을 교환하는 바터 거래계약의 체결등을 비롯한 보다 세밀한 서비스에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고 말한다. 예를 들자면 이란이 지난해 뉴질랜드 產 羊과 석유를 교환한 것, 리비아가 소련 블럭 국가들에 석유를 공급한 대신 무기를 인수한 것, 사우디 아라비아가 英國·美國에 70억 달러 상당의 석유와 항공기, 미사일등 군사장비를 스위프한 것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사우디는 최근 경화절약을 위해 현금 대신 석유로 지불하는 쪽을 택하고 있으며 외화보유고를 증대시킨다는 정책에 따라 석유생산을 계속 늘리고 있다.

은행과의 합작투자사업

보다 복잡한 형태를 취한 것으로 카운터 트레이드를 꼽을 수 있다. 이것은 은행과 합작투자 관계에 있는 오일 트레이더가 조건부 날인증서(escrow : 한 조건이 성취된 경우에 증서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제3자에게 인도하여 보관해 둌) 구조를 개설해서 석유 수출국과 수입국간의 지불 관계를 정리하는 방식이다. 런던의 스트레이츠 페트롤리엄 파트너즈誌는 이러한 방식에 의해 석유와 타 상품간에 이루어진 지난해 바터 거래와 카운터 트레이드 금액은 하루 5천500만달러, 석유로는 OPEC 산유량의 13%에 해당하는 하루 200만배럴에 달했던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혁신적인 트레이드 방식도 올해 이들 무역회사들의 대규모 파산을 막지는 못했다. 가장 유명해진 파산사건은 오스트리아 국영 비스트 알피네社가 오일 트레이드 사업으로 1억5천만달러의 적자를 보았으며 이에따라 최고 경영진 퇴진을 불가피하게 한 일이다.

(월 스트리트 저널 3/13)